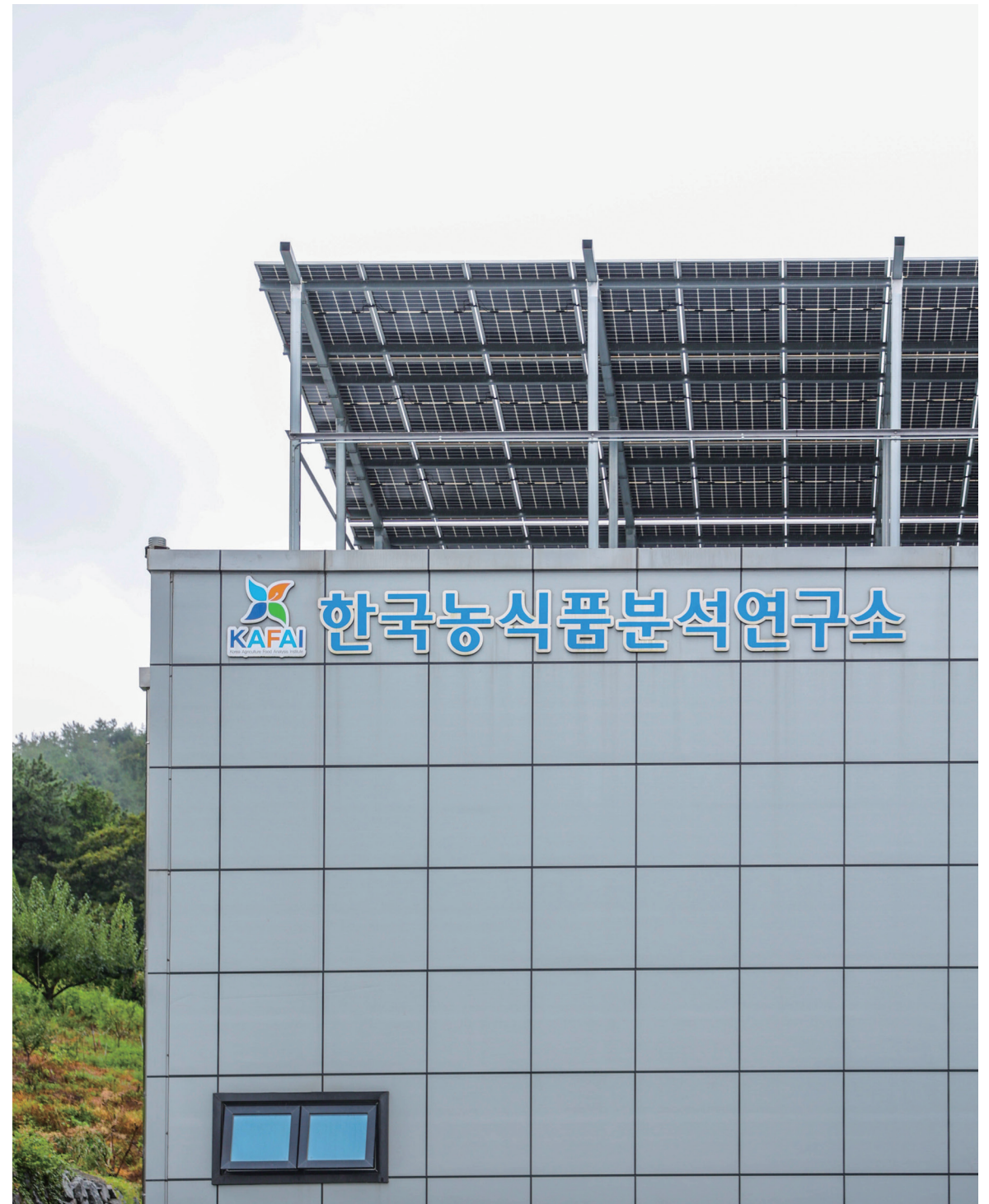


계획대로 되지 않는 계획
그래도...

(주)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
주임
오수미
(38세)



가설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을 때,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낙제했을 때, 서류전형에서 광탈했을 때... 참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면 단지 시행착오에 불과했다. 오수미 주임은 “당시의 힘듦은 과거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시간에 멈춰있다고 생각했었다”라며 “이제 내 삶은 과정 그 자체이자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진행형임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처럼 굽어진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라고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올 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셨어요.

업무 적응은 완료했나요?

4월에 복직했는데, 8월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웃음) 계속 해 온 일이라 어려움 없이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두 아이의 등하원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단비 같은 단축근무제도를 만나 힘을 내는 중입니다.

농식품 잔류 농약 분석은 어떤 일인가요?

저희 회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업체로 정부나 지자체, 개인 등이 의뢰한 농산물과 식품에 잔류 농약 및 항생제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지를 검사해요. 제가 맡은 업무는 잔류농약 분석인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친환경/무농약/GAP인증/수출/일반(로컬) 농산물 등에서 약 460여 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하고 검출시 여러 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정 잔류농약 성분이 얼마 만큼의 양으로 잔류하는지 정성·정량적으로 검증합니다.

대학원에서 식품영양을 전공하셨는데요. 취업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셨나요?

학부는 생명공학을 전공했고, 대학원 석사는 식품영양을 전공했어요. 미생물 전공 교수님 연구실에서 유산균이 해마다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새로운 유산균을 발견하는 연구를 했어요. 현재 직장에 오기까지 과정이 복잡해요. 이야기를 하려면 긴테 께찰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느 시점부터 시작할까요?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 반, 취업에 대한 두려움 반으로 석사 진학을 고민했고, 진학하고자 했던 연구실에 인턴연구생으로 갔어요. 연구실을 세팅하는 신생 연구실이었고, 연구주제보다 네임밸류를 보고 간 곳이라 적응이 힘들었어요. 결국 진학을 포기하고 식품회사에서 일반미생물을 검사하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수록 진학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1년

후에 파트타임으로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주중 하루는 수업을 듣는 대신 토요일에 출근해 근무시간을 보충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어 공부를 빨리 마치고 다시 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장학금을 받게 돼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원하던 풀타임 대학원생이 되고 마음껏 공부하셨어요?

아니요.(웃음) 학교만 다녔으면 논문도 마치고 졸업했을 것 같은데, 당시 전북에 있는 ○○연구소에서 인턴을 모집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지원했어요. 인턴으로 연구하며 박사 논문을 준비했어요. 연구도 재밌고, 환경도 좋았어요. 당시 결혼도 하고 첫째를 임신했어요. 출산휴가를 갈 때까지만 해도 휴가가 끝나면 당연히 복직하는 줄 알았는데, 휴가를 쓰자 제 자리가 사라져 본의 아니게 일을 그만뒀어요. 비정규직 인턴의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연구실 분들도 저도 잘 몰랐던 거죠. 박사 논문 연구도 중단돼 숙제를 끝내지 못한 아쉬움이 커요.

출산과 실직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으셨네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전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육아를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한 것에 대한 포기도 안 됐고요. 지금 일을 놓으면 영원히 못 할 것 같아 첫째 아이가 생후 7개월쯤에 ○○기관에 계약직 분석연구원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업무도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일이었고, 분석 분야의 일을 시작하며 좋았지만 계약직이란 한계가 있었죠. 근로계약 만료 시점이 되어 다시 ○○기관의 계약직으로 자리를 옮겨 유해물질중금속 분석 업무를 했어요. 일하면서 계속 정규직 취업 준비를 해서 전남에 있는 ○○기관에 드디어 정규직으로 합격했어요.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지만, 계약직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남편도 4살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침 7시 전에 집을 나와 밤 11시가 넘어 돌아오는 생활이 지속되자 남편은 육아 스트레스가 커지고, 저는 체력적으로 힘들고, 아이는 분리불안이 시작됐어요. 결국 회사를 포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민을 생각했나요?

회사를 그만둔 후 WISET의 경력단절복귀사업을 통해 ○○기관의 신소재 관련 연구실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도 직접할 수 있고, 또 제 인건비를 WISET에서 3년간 지원받으니 마음의 부담도 적었어요. 하지만 신소재 분석은 제가 해온 식품분석과 많이 달랐어요. 3년 동안 계속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저 역시 발전이 없을 것 같았죠.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상실감과 불안감도 컸어요. 그러다 대학생 때 1년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때가 생각났어요. 남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삶에 열중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제가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아이는 무상교육이 가능한 곳이라면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에게도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퇴근 후엔 어학원에 다니며 이민 관련 정보를 모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 없었죠.



WISET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군요.

이민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취업의 문은 두드렸어요. (웃음) 지금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면접 이후 대표님께 WISET의 경력단절복귀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안내해드렸죠. 안내과정 중 저 또한 WISET의 경력단절복귀사업을 현재의 회사로 이관해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제가 지내온 과정과 고민을 이야기하니 대표님께서 함께 일하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셨어요. 직장 선택 시 우선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업할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근무 조건이나 복지 등은 살펴볼 여유가 없었죠. 또 수도권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없어 지역을 떠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번 이직하며 회사의 외형뿐 아니라 일의 보람과 복지에도 관심을 두게 됐어요. 또 당시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아이를 키우기에 일과 가정의 균형이란 조건이 커졌습니다.

지역에서의 이공계 커리어 성장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지방이다 보니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관과 기업이 많지 않아요. 또 주변에 여자 선후배가 많지 않아 일과 육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육아를 하며 직업인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아직 불안함도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요즘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는 WISET의 멘토링을 게시판에 육아와 회사 관련 고민을 올려요. 그러면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진심 어린 공감과 조언을 글로 남겨주세요. 어딘가에서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힘이 나요.

일과 육아에 에너지를 나누다 보면, 자신을 개발하고 돌볼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커리어 개발을 위한 스펙 쌓기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연차만큼 전문성이 강화됐는지 고민입니다. 지금 직장에 취업하고 컸히는 실력을 키우려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외부 교육 및 세미나, 회의 참석등 스스로 역량을 높이려고 해요. 분석 장비의 유지보수 능력도 개발하고, 동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욕심만큼

다 채우지 못함을 알았어요. 한곳에 욕심을 부리면 균형이 깨짐도 알게 됐고요. 입사 5년 차, 아직 커리어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둘째가 어리다 보니 조금해하지 않으려고 단축근무를 신청했어요.

결혼과 출산은 피할 수 없는 고민일 것 같아요. 일과 육아 병행이 아닌,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생각은 안 해봤나요?

첫째 때 출산 후 복직이 안 된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임신을 미루었을지도 몰라요. 당시엔 몰라서 더 용감했지만, 돌아보니 흔들리고 힘들어도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친구나 후배들이 물어보면 젊을 때 결혼도 임신도 다 해보라고 해요. 선택을 후회하기보다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하면 된다고요. 출산휴가를 마치고 처음 출근했을 때 다른 워킹맘 동료가 선물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지원군이 있는 것처럼 든든했어요. 나만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동질감과 공감대를 느꼈어요.



첫째와 둘째의 터울이 긴 편인데, 둘째 임신은 준비하셨나요?

첫째를 낳은 후 금전적, 시간적 여유 없이 고군분투하느라 둘째 생각을 안 했어요. 순천으로 이사하고, 첫째가 초등학교 친구들과 사귀며 자기는 왜 동생이 없냐고 자주 묻더라고요.(웃음) 개인적으로 몇 해 전 시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며, 외동이면 외롭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번엔 계약직이 아니라 출산 후 복귀에 대한 불안함도 없었고요. WISET의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 회사에 대한 걱정도 덜며 둘째를 계획했어요.

그동안 쉽표 없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지난 1년 육아휴직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첫째 때는 제가 자리를 못 잡은 상태라 회사나 정부의 육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마음으로 육아를 했어요. 첫째와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우쿨렐레도 배우며 저를 위한 시간도 만들었어요. 순천에 이사 와서도 회사와 집만 맴돌았는데, 쉬는 동안 순천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지리도 익혔어요. 이제 네비를 안 켜고 순천을 다닐 수 있어요.

육아는 일을 통한 성장과 다른 차원의 성장을 경험하게 해준 것 같아요.

2시간에 한 번 기저귀 갈고, 자다 깨서 우유를 먹이다보면 '우리 엄마도 나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기 전엔 못해본 생각이예요. 집과 회사를 오가느라 온전히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은 적지만, 내가 나만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찰 때가 더 많아요. 예전에는 남의 시선에 신경 쓰고 조바심을 느꼈다면, 지금은 천천히 가도 괜찮다 싶어요. 다만 그 길을 꾸준히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광주에서 순천으로 생활권도 옮기셨어요.

처음 입사 후 1개월은 광주에서 매일 1시간씩 출퇴근을 했는데, 이전과 달리 마음이 편안했어요. 순천에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회사, 집, 학교 생활반경이 모두 30분 이내에서 해결돼 삶의 질도 높아졌어요. 첫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엄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해서 휴일에는 회사에도 종종 데리고 와요.



지금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직'이라는 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지금의 일이 보람되고, 만족스럽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일을 놓지 않고 흘러 흘러 오다 여기에 도달한 삶이기에 천직이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일은 오수미 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하게는 급여를 받으면 나와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생각하면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자부심도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일의 참 의미는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다 일터에 오면 제 이름이 불리는 것이 좋아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걸어온 삶의 연속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들려주세요.

솔직히 예전만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진 않아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계획은



세우되 타이트하지 않게, 대신 담담하게 꾸준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도 낳았는데, 뭐든 못하겠나'라고 생각해요. 뒤돌아보니 계속 달리지만 했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지, 저 스스로에 대해 아직 잘 몰라요.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2022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육아휴직을 갖고, 오롯이 나와 가족의 시간을 보낸 후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했다.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이공계 분야 여성 동료들 만날 기회가 적어 아쉽지만, 언제나 열려있는 WISET 온라인 멘토링이 큰 힘이 된다.

